

李箱과 翁鬧 모더니즘 소설의 인물 양상 비교

장수용*

1. 머리말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대만의 1930년대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 받는 李箱과 翁鬧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겪는 현실의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두 작가가 창작한 소설 작품들의 특성을 살펴 볼 때 우연의 일치와 같이 30년 당대 식민지 사회 억압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예술방식과 표현기법으로 모더니즘¹ 소설문학을 창작하였다. 특히 두 작가는 공통적으로 서구적 근대화 이후 자본주의적 사회 모순으로 인한 현실로부터 고립되고 소외²된 인물을 새로운 예술방식과 다양한 기법으로 표출하였다.³

그러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의 근대소설에 대한 비교 연구는 리얼리즘 계열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 모더니즘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⁴ 또한 비교문학적 시각은 주로 서구와

* 中國文化大學 韓文系 兼任教授

¹모더니즘은 대체로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으로 인한 근대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가속화로 도시의 형성, 물질주의에 따른 인간 내면의 황폐화 등으로 비롯한 공동체적 삶을 상실한 개인의 내면에 대한 관심과 모색의 경향을 띠고 새로운 문학 양식의 요구 하에 출현하였다. '모더니즘'의 미학 발전은 내적으로 영원한 불안감, 예측 불가능한 변화라는 다변의 특징을 내포하며, 리얼리즘과 같이 외적인 현실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닌, 내적 주관적인 세계로 전향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모더니즘은 김용직, 「1930년대 한국시와 비평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형성 전개」, 『비교문학』 13집, 1988, 71~72쪽; 蔡源煌, 『從浪漫主義到後現代主義』, 台北: 雅典出版社, 1998, 27쪽; 馬森, 『台灣戲劇-從現代到後現代』, 台灣: 佛光出版部, 2002, 137쪽 등 저서와 장수용, 「李箱과 翁鬧 모더니즘 소설 比較研究」 박사학위논문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² 疏外란 인간이 그 자신을 異質의 존재로서 경험하는 經驗의 한 類型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들 인간이 그 자신으로부터 疏遠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世界의 中心으로서, 그의 行為의 創造者로서 경험하지 못하고 그의 행위가 그 결과가 그가 복종하고 심지어는 숭배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의 주인이 되어 버렸다. 소외된 인간은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듯이 그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事務이 경험되듯이 경험된다. 그는 知覺과 常識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그 자신이나 외부 세계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관련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문길, 『疏外論研究』, 문학과 지성사, 1978, 17~18쪽.

³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사, 2001, 157~168쪽.

⁴ 한국. 대만 현대문학을 비교 연구한 논문으로는 먼저 孔祥曉, 「日據時期台灣與韓國新文學小說 中的歷史經驗」 國立新竹教育大學語文學系語文教學碩士學位論文, 2006. 다음으로 施如玟, 「韓國與台灣農民小說之比較研究-李無影與呂赫若為中心」, 中國文化大學韓國語文學系碩士論文, 2007. 그리고 徐藝旂, 「李箱과 翁鬧(옹나우) 단편소설의 한중일한 번역연구- 「지주회시」, <날개>, <봉별기>, <노래시계>, <잔설>, <해뜨기 전의 연애이야기>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

일본과의 영향관계에서 많이는 수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용자적 입장에 있었던 나라들 사이의 수평비교 측면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여 필자는 대비 분석의 비교문학적 방법으로 1930년대 같은 시대를 살았으나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李箱과 翁鬩의 소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두 작가의 소설 속 인물들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기존연구에서 李箱과 翁鬩의 소설 작품에서 표출된 모더니즘적 특성인 소외의식에 관한 접근이 깊이 있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을 감안하여, 두 작가의 소설 속에 표출된 소외된 인물이 작품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한국과 대만의 모더니즘의 형성과 특징

20세기초부터 한국과 대만은 같은 일제치하의 식민지로서 1920년대 말의 경제공황, 1931년의 파시즘 강화 등을 거쳐, 193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모더니즘 문학이 형성된 과정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의 모더니즘⁵은 1910년 함방 이후 한국의 수도 경성(서울)은 1913년부터 일제의 식민지 도시계획개발정책에 의해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겪으면서, 1910년에는 약 23만 명, 1920년대 말에는 약 30만 명이던 것이 1941년에는 97만 명으로 급증하였다.⁶ 이러한 변화는 경성의 공간이 급격히 확장되고 현대도시로 부상되면서 백화점, 다방, 카페 등 도시문화의 여러 표상적 건물도 함께 등장하였다. 그러나 화려한 도시화의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농촌의 피폐화가 숨겨져 있었다. 특히 경제공황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도시 밀집화 현상이 도래함으로써, 경성에는 거리를 헤메는 실업자, 신당리의 빈민굴, 뒷골목의 거지, 매음 등의 어두운 풍경으로 가득 찼다. 이러한 배경의 근대화 도시적 분위기 속에 성장한 도시세대로 구성된 ‘구인회’의 작가들은 당면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제라 여기고 자신과 현실을 작품 속에 담아내고자 하였다. 그들은 서구의 도시에서 시도되고 있는 전위적인 창작방법에서 도시 체험에 어울리는 다양한 실험적인 예술방식과 새롭고 혁신적인 언어 감각을 강조하면서 모더니즘 소설을 창출하였다. 그들은 전통적이고 이념적인 문학형식에 내용을 담은 프로문학과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실험적이고 도시적 감각이 담긴 미학적 예술형식으로 현실 사회로부터 공동체적인 삶을 상실한 고립된 개인을 작품에 형상화하였다. 특히 그들은 개별적인 주체의 내면세계에 관심을 가지며 공통적으로 기술자본주의의 모순된 현실로부터 단절된 도시 롬펜 지식인과 서울 변두리 빈민촌에 거주하는 도시빈민의 삶을 모더니즘 소설에 담아냈다.

사학위논문, 2012. 저서로는 曾天富, 『한국 프로문학과의 비교를 통해 본-日帝時期臺灣左翼文學研究』, 세종출판사, 2000 등이 있다.

⁵ 1930년대 한국의 모더니즘 전개과정은 서준섭, 『한국모더니즘 문학연구』 일지사, 1988; 최혜실, 『한국모더니즘 소설연구』, 문지사, 1992; 이명학, 『한·중 모더니즘 소설 비교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⁶ 『서울 6백년사』 제 4권(서울특별시, 1981), 「戶口의 동태」 및 「도시계획」, 서준섭, 앞의 책, 22쪽 재인용.

한편, 대만의 모더니즘⁷은 1930년대 초, 일본으로 유학한 대만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895년 청일전쟁으로 인하여 대만은 일본에게 차지 버린 자식과 같았고, 이러한 피식민으로서의 자기인식은 대만 초기 현대의식의 형성에 어두운 영향을 미쳤다.⁸ 그러나 식민지 권력에 의한 도시화, 공학교와 일본어의 급속한 보급, 식민지 권력에 종사하는 엘리트들의 양성 등의 특수한 조건은 대만의 근대화 건설의 동기를 막론하고, 당시 대만인들에게 서구의 문화, 과학기술 및 신사상, 신관념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서구와 대만의 문화 충돌이 야기되었고 대만의 근대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⁹ 이러한 변화는 대만사회의 근대화에 필요한 개인주의, 자유주의 등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촉진작용을 하였으며, 이는 대만의 모더니즘 소설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문화적 바탕이 되었다. 한편, 당시 대만 농촌의 현실은 제 1차 세계대전 후, 세계적 경제 공황, 식민지 수탈 그리고 봉건지주들에 의한 착취 등으로 80%가 토지가 없는 농촌의 전농(佃農)들이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동했지만 도시의 공장 또한 경영의 실패로 실직자가 되거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¹⁰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피와 정치를 멀리하는 경향이 형성되었고 문학계에서는 퇴폐, 방황과 고민으로 빠지는 지식인에 의해 창작된 회색과 은폐적 모더니즘 문학소설이 등장하게 된다. 모더니즘적 경향의 작가들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가지는 한계와 모순이 가득 찬 현실을 문학으로 형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비참한 농민의 생활을 잘 드러내는 공간인 농촌의 부조리도 그들의 소설에 모두 담아냈다.

李箱과 翁鬧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또한 한국과 대만의 193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당시 자신이 당면한 일제 강점기 현실을 인식하면서 공통적으로 억압적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지식인과 소시민의 피폐한 삶을 작품 속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두 작가는 공통적으로 당시 전위적인 모더니즘 소설로 그들의 사유를 담아냈다. 이러한 창작 배경을 공통성으로 두 작가의 모더니즘 소설에서 형상화한 인물들에게는 우연하게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두 작가가, 어떠한 예술형식으로 그들의 작품에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⁷ 대만 모더니즘 문학은 특수한 시대적 배경으로 대만에 두 차례 유입되었다. 처음으로 유입된 시기는 193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일본의 모더니즘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일본으로 간 유학생을 통해 수용되었다. 두 번째 유입된 시기는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60년대에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 시기에는 서구의 모더니즘을 직접적으로 유입하여 서구 모더니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또한 당시 대만 문단의 주류 사조이었다. 陳美美, 「台灣現代主義文學의 萌芽與再起」, 佛光人文社會學院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4, 1 쪽. 그리고 여기서 1930년대 대만의 모더니즘 전개과정은 葉石濤, 『台灣文學史綱』, 文學界雜誌, 1987; 王德威, 『臺灣:從文學看歷史』, 台北: 麥田出版社, 2009; 陳美美, 「台灣現代主義文學의 萌芽與再起」, 佛光人文社會學院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4; 古繼堂, 『台灣小說發展史』, 台灣: 史哲出版社, 1996; 이명학, 앞의 책 등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⁸ 王德威, 『臺灣:從文學看歷史』, 台北: 麥田出版社, 2009, 129~132 쪽.

⁹ 金영신, 『대만의 역사』, 지영사, 2001, 247~254 쪽.

¹⁰ 葉石濤, 『台灣文學史綱』, 文學界雜誌, 1987, 50 쪽.

3. 李箱과 翁鬧 소설의 인물 양상 비교

李箱과 翁鬧의 모더니즘 소설에 나타난 인물의 양상은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을 대별하면 ① 근대화 문명 사회체제에 편입되지 못하여 소외된 경우와 ② 기계적인 근대화의 일상생활의 반복적이고, 압박감에 적응하지 못하여 고립된 경우가 있다. 여기서 이들을 둘로 나누어 ①의 경우를 사회체제에 대한 부적응, ②의 경우를 일상성에 대한 부적응이라고 각각 구분하고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작품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사회체제에 대한 부적응

사회체제에 대한 부적응적 인물을 다룬 작품으로 李箱의 「12월 12월」, 「날개」, 「지주회시」, 그리고 翁鬧의 「天亮前愛情故事」, 「殘雪」 등 여러 편이 있으며, 두 작가의 소설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런데 이들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일일이 분석 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이므로 여기서는 李箱의 「날개」와 翁鬧의 「天亮前愛情故事」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인물의 사회체제에 대한 부적응의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외되었는지 그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저 소외된 원인을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소외된 근본적인 원인은 1930년대 식민지 권력에 의한 도시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갈등에 있다. 李箱의 「날개」에서 주인공인 ‘나’는 모든 현실 문제에 관심이 없으며, ‘나’는 한 사회인으로서 일을 해보는 것이 성가시다고 느낀다. 그리고 인간사회가 쑥스러웠고,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무의미한 인간의 탈을 벗어 버리고 싶어 한다. ‘나’는 ‘매춘부 아내’에게 거북살스러운 존재인 것을 인식하면서도 현실을 잊기 위하여 아내에게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아내 외에 그 누구와도 말을 건네지 않고 놀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어둡고 햇빛이 들이지 않는 ‘나’의 방에서만 놀고, 공상에 빠진다. ‘나’는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이러한 자신에게 꼭 맞는 방에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한다. ‘나’와 아내(사회체제)의 관계는 소통이 단절된 채 각기 개인적인 고립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주인공인 ‘나’의 부적응은 ‘아내(사회체제)’에 대한 단절에 따른 갈등으로 생긴 것이다.

翁鬧의 「天亮前愛情故事」에서도 사회체제에 대한 부적응의 원인은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天亮前愛情故事」의 주인공인 ‘나’는 20세기 초 근대의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달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반감과 혐오를 느끼며 무력하게 현실 사회 속에 살아 가야 한다. ‘나’는 만 30세의 마지막 날 18세의 어느 유곽의 매춘부를 찾아가 아무에게도 자신을 털어놓지 못했던 자신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비정상적인 사고를 숨김없이 고백한다. ‘나’에게는 사랑 외에는 어떤 것에도 의미를 두지 않는다. 현실 사회에서 일반인이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명예, 성공, 부귀 등 모든 것이 무의미하였다. ‘나’는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 자칭하며 오직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사랑만이 의미 있으며, ‘나’에게는 오직 사랑만이 자신을 완성된 주체로

만들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는 밤마다 이름도 모르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는 환상 속의 여인에게 밤 인사를 해야만이 잠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내면적 심리 세계에 윤패된 ‘나’에게는 이 세상이 사악한 우리와 같은 것이며, 그 속에는 혐오스럽고 구타를 일으키는 현대 문명 사회의 전철, 자동차, 비행기 등의 기계들이 있을 뿐이다. ‘나’는 근대화 사회의 상징인 전철, 자동차, 비행기 등을 혐오한다. 뿐만 아니라, 역겨워 참을 수가 없으며, 토하고 싶고, 모골이 오싹해 견딜 수 없다. 그들에 대한 전적인 배타의식을 숨길 수 없다. 그리고 라디오에 대한 혐오와 싫증은 극치에 도달하여 ‘나를 심지어 미치게까지 한다. ‘나는 현실 사회의 기계적인 것에 대하여 거의 병리적인 배타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나’는 자신을 이 세상에 적합하지 않은,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때 주인공인 ‘나’의 부적응은 근대의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달(사회체제)에 대한 배타의식으로 인한 혐오와 싫증에 따른 갈등으로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체제에 대한 부적응에 나타난 두 작품에서는 현실과의 대결에서 도피의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체제를 상징하는 ‘아내’ 혹은 근대화 문물은 이들을 억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일상성에 대한 부적응

1930년대 한국과 대만의 일상은 공통적으로 당시 특수한 시대적 배경인 일제의 억압적인 통치와 연관되어 있다. 한국은 1910년 합방 이후, 대만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공통적으로 일제에 의해 근 35년 또는 반세기 동안 식민화되었다. 일제는 차례로 양국의 ‘국가조직’을 식민화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경제체계’를 식민화 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인한 경제 침체의 타개를 위한 자본주의적 도시를 발전시켰으며, 또한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폭력적인 파시즘의 감행했다. 한국과 대만은 공통적으로 타의적인 도시발전과 파괴화된 사회체제가 일상생활에 침투하면서 ‘일상세계’를 상실한다.

사회체제에 대한 부적응적 인물이 식민지 권력화에 의한 근대화 문물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거나 수용하면서 사회와의 부적응, 고립감, 소외의식을 가진 인물이라면 일상성에 대한 부적응적 인물은 식민지 지배의 폭력화에 맞서기보다는 ‘사건 없는 일상성’, 즉 매일같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부적응을 내포한 작품으로는 李箱의 「지도의 암실」과 翁鬧의 경우, 「憨伯仔」가 있다.

1930년대 역사적 배경으로한 「지도의 암실」의 주인공은 기계적인 근대도시의 일상생활의 분주함과 압박감에 적응하지 못하며, 자신의 안식처에서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이다. 이와 같이 일상성에 부적응하는 원인이 사회체제에 대한 부적응 원인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쓸데 없는 공상으로 밤새 잠 못 이루며 늦은 아침에 일어난다. 그는 양치질을 한 후, 변소에서 글을 쓰며, 운동복을 갈아 입고, 근대도시의 일상적인 삶을 적응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모습으로 바꾼 후 하루의 일

과를 시작한다. 그러나 앵무새와 원숭이로 암시되는 기계적인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생활로부터 초조와 압박감을 느낀다. 산책을 나선 그에게 도시는 마치 무덤처럼 불안과 공포감을 안겨준다. 근대도시 생활공간의 분주함은 심지어 그에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한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하루가 끝나 집으로 돌아와서야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결국 나는 암실로 암시되는 겹겹이 쌓인 자신의 안식처에서 글쓰기를 할때만 일상생활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을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서 「지도의 암실」의 주인공인 ‘나’의 부적응은 도시의 기계적인 반복적이고 빠른 생활 템포를 따라 갈 수 없어 생존의 권태를 느끼며, 좌절로 인해 입은 상처, 그리고 도시의 일상생활의 분주함과 압박감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갈등으로 생긴 것이다. 翁鬧의 「憨伯仔」의 주인공 역시 타의적으로 피폐화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시종일관 물개성의 인물과 같이 심리 상태는 정지된 채 어떤 일에도 무관심하며 살아 간다. 그러나 「憨伯仔」의 경우, 주인공 憨伯仔의 일상생활은 30년대 대만의 궁핍한 농촌 생활 속에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憨伯仔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눈병을 앓고 있으며 65세가 되도록 가난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외롭게 살고 있다. 그는 매일 같이 소와 말같이 고된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가난한지에 대해 아무런 의식이 없다. 그는 노력하여 자신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거나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식이 없으며 다만 우울하다. 그래서 매일같이 고달프고 허기진 일상만이 반복된다. 결국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생활에 대해 아무 의미 없이 무력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볼때 「憨伯仔」에서 주인공인 ‘나’의 부적응은 궁핍한 농촌 생활 속에 일상의 고달픔을 호소할 인식조차 없이 단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며, 그 어떤 사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하게만 살 수 밖에 없는 원인에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일상성에 대한 부적응이 나타나는 두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사회체제에 대한 의식과는 관계 없이 타의적으로 상실된 일상에 의해 생활을 빼앗기는 것이 부적응의 원인으로 나타나 있다.

4.인물의 부적응 대응 양상

가. 현실도피적 대응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李箱의 「날개」와 翁鬧의 「天亮前愛情故事」에서는 공통적으로 1930년대 같은 일제치하 식민지 한국과 대만의 당대 현실 사회체제에 편입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된 식민지 지식인의 소외된 모습을 그렸다. 두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적응 대응 양상은 주인공들은 외부 세계에 편입하지 못해, 현실로부터 분리라는 건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 도피를 수단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모두 유곽을 활동 공간으로 설정한 것이다.

①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한 번 지에 18 가구가 죽—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호가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중략) 조용한 것은 낯뿐이다. 어둑어둑하면 그들은 이부 자리를 걸어 들인다. 전등불이 켜진 뒤의 18 가구는 낮보다 훨씬 화려하다.

저물도록 미달이 여달는 소리가 잦다. 바빠진다. 여러 가지 내음새 가 나
기 시작한다. 비웃 7) 굶는 내, 탕고도란 8)내, 뜨물내, 비눗내...
...(「날개」, 319 쪽)

㉔ 天又好像開始亮了.請把那件上衣遞過來.我必須在天亮前回家.(中略)如果
我對你說,我沒有一個可以談這些話的朋友,相信你也能多少原諒我的無禮才
對.你一定從幾十個,不,從幾百個男人口裏聽到同樣的話題吧?(中略)天要
亮了.我非趕時間不可.請送我到那邊門口吧..對不起,善良的你!請露出你的笑容,
讓我看一眼.謝謝,這樣我就可以放心回去了.再見!再見!¹¹ (「天亮前愛情故事」,
136 쪽)

위의 예문 ㉓은 「날개」의 공간이다. 그곳은 18 가구의 창호지와 아궁이
모양이 똑 같은 흡사 유곽과 같은 공간이다. 예문 ㉔는 「天亮前愛情故事」
의 공간이다. 여기서 유곽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간에 대한 묘사로부터
유곽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유곽이라는 공간은 윤리적인 것과 거
리가 먼 윤락적이고 폐쇄된 공간으로 음습한 느낌을 주고 있다. 두 작품의
주인공들의 삶을 이러한 폐쇄된 공간으로 한정지은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
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경성과 동경이라는 도회지에서 사는 도회
인이면서도 도시 문명성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 설정은 실제적인 생활의 장소라기보다는 현실 사회에 적
응하지 못하며 폐쇄된 심리적 상태를 암시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¹²

그리고 도피의 수단에서 구체적으로 「날개」와 「天亮前愛情故事」에서 두
주인공이 선택한 수단에는 차이가 있다. 프롬의 도피 메커니즘 이론에 의
거하면 李箱의 「날개」에서 주인공의 성격은 ‘권위주의 메커니즘’ 지향적인
반면, 翁鬧의 「天亮前愛情故事」에서 주인공은 ‘파괴적 메커니즘’을 택하였
다. 프롬에 있어서 “도피 메커니즘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개인이 외부 세계
와의 분리라는 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택하
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현실 사회와의 연대 관계의 상실에 의해 주체는
그 자신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게 됨으로써 고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개인은 이 같은 고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이기에 그의 행위는 거의
자동적으로 자신의 개성이나 통일성을 포기한다. 특히 권위주의 메커니즘
의 유형에 속하는 개인은 자신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에게 복종하는 방식
으로 고독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다. 이러한 도피는 자신의 자아를 잊으려
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자신을 비하시키고, 고통당하게 하며 전혀 무
의미하게 만듦으로써 그 자신이 그 어떤 결단을 내리거나, 그의 운명을 최
종적인 책임을 지거나, 또는 그의 생이 가진 의미에 대해 회의를 하지 않
아도 되는 좋은 방법이 된다.”¹³ 반면에 파괴적 메커니즘의 유형은 생의 위
축(내적 봉쇄)은 고독하고 무력한 개인이 그의 감각적, 정서적, 지적, 잠재
력을 구현시키는 것이 봉쇄되었음을 말하며, 이 경우 그 개인은 내적 안정
과 자발성을 결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내적 봉쇄는 쾌락과 행복에 대한 문

¹¹ 본 논문 안에 인용한 문장은 편의상 (작품 제목, 전집-쪽수)순으로 표기
하도록 한다.

¹² 김진석, 『한국 심리소설 연구』, 태학사, 1998, 232~233쪽.

¹³ 정문길, 『疏外論研究』, 문학과 지성사, 1978, 158~161쪽.

화적 타부에 의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이 같은 외부적 위험과 문화적 타부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그 대상을 파괴하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¹⁴ 李箱과 翁鬧의 비교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점은 두 작가의 작가의식의 형성에 내적인 유사성 중의 하나인 ‘양자’ 경험에서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李箱의 경우 어린시절 백모의 무시로 인한 소외감을 「공포의 기록」 제 2장 ‘불행한 계승’에서 엿볼 수 있다.

나는 물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작은어머니 얼굴을 암만 봐도 미워할 때가 어디 있느냐. 넓은 이마, 고른 치아의 열, 알맞은 코, 그리고 작은아버지만 살아 계시면 아직도 얼마든지 연연한 애정의 색을 띠울 수 있는 총기가 있는 눈하며 다 내가 좋아하는 부분 부분인데 어째 그런지 그런 좋은 부분들이 종합된 「작은어머니」라는 인상이 나로 하여금 증오의 염을 일으키게 한다. 물론 이래서는 못쓴다. 이것은 분명히 내 병이다. 오래 오래 사람을 싫어하는 버릇이 살피고 살피서 후 급기야에 이 모양이 되고 만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내 육친까지를 미워하기 시작하다가 나는 참 이 세상에 의지할 곳이 도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참 안됐다. (「공포의 기록」, 192 쪽)

여기서 ‘작은 어머니’는 李箱의 ‘백모’를 암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李箱은 주인공인 ‘나’를 통하여 자신의 백모에 대한 애증관계를 형상화하였다. 李箱은 ‘작은 어머니’가 자신이 좋아하는 타입의 외형을 가진 여인이지만, ‘작은 어머니’라는 인상이 그로 하여금 증오하게 만든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 증오심은 어린시절 백모로부터 수모를 받은 것에서 기인하였으며 성인이 되어 그러한 증오심은 완화되기는 커녕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이러한 증오심은 양모인 백모로부터의 사랑의 결핍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에 의하면 “부모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대 했던 사랑의 감정이 버림으로 인한 상처 혹은 타격을 받으면서 그 사랑은 반대로 증오가 되어 싹트어 진다.”¹⁵ 라고 하였다. 3살의 어린 나이로 양자로 키워졌으나 백모는 李箱에게 관심과 따뜻한 사랑 대신에 무시와 소외로 답하였다.

그 수탉이 딱해 죽겠다. (중략) 나는 그만 그놈의 끈기에 진력이 나서 못생긴 놈, 미련한 놈, 못생긴 놈, 미련한 놈, 하고 혼자서 화를 벌컥 내어 보다가도 또 그놈의 그런 미칠 것 같은 정열이 다시 없이 부럽기도 하고 존경해야 할 것같이 생각키기도 해서 자세히 본다. (중략) 닭들의 생활에도 그런 개룩한 분쟁이 있으니 하물며 사람의 탈을 쓴 나에게 수없는 번거로움이 어찌 없으랴. 가엾은 수탉에 내 자신을 비쳐 보고 비쳐 보고 나는 다시 한 구두짜를 질질 끈다. (「공포의 기록」, 194~195 쪽)

위의 예문에서 李箱은 자신을 수탉으로 비유하여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백모는 여전히 자신을 본체만체 무시하는 가엾은 수탉과 같다고 표현

¹⁴ 정문길, 『疏外論研究』, 문학과 지성사, 1978, 158~161쪽.

¹⁵ 김중은, 『李箱의 理想과 異常』, 문학사상사 vol. 12, 1973, 246쪽.

하고 있다. 李箱은 유년시절부터 싹트기 시작한 분리불안 심리는 성장한 이후까지 계속 이어 졌다. 李箱은 버림받은 자식으로 부모가 자신을 찾으러 오기를 기다렸으나 백부가 사망하기까지 그의 친부모는 그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이러한 유년시절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의 분리불안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애정이 만족되지 못한 채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李箱이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에게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성격으로 발전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翁鬧의 경우 李箱보다 2 년 후인 5 살 때 양자로 들어갔다. 그러나 李箱과는 달리 5 살 때 친부모를 떠나 1940 년 11 월 11 일 일본에서 사망하기까지 다시는 그들을 만나 보지 못했다. 翁鬧의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궁핍한 농촌 생활이었다. 「羅漢腳」에서 翁鬧의 유년시절과 그의 친부모에 대한 기억을 추적해 볼 수 있다. 「羅漢腳」은 농촌에서 자란 3 인칭 5 살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1930 년대 당시 대만의 궁핍한 농촌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羅漢腳은 여섯 형제 중에 다섯째이다. 그의 아버지는 일년 내내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농사를 짓고 있다. 그의 어머니는 이웃집의 일을 돕거나 여가가 있을 때는 대나무 삿갓을 짚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가난하였다.

炎熱의夏天快過去了,有一天,羅漢腳的家來了一個陌生的阿姨,她來到後,就從包袱巾裏取出糖菓,分給他們幾個兄弟.很難得的,那一天,他父親和他大哥們也都在家,他母親看到那位阿姨來到家,就開始替小弟弟穿上新衣服和鞋子.穿戴過後,他母親從旁幫忙把小弟弟背在阿姨背上,(中略)小弟弟被長長的帶子縛在阿姨背上時,他轉過頭向著母親,雙手搖動,嘴巴蠕動著,似乎想說些什麼,但直到完全地縛好時,他仍沒說出什麼,等到阿姨跨出們的時候,終於嘴巴一歪,開始哭了起來.「乖孩子!馬上就會回來的!」母親的話聲,愈說愈低,語尾已含混不清,她的眼圈也紅起來了.過後的幾天,小弟都沒回來,他被賣到很遠的地方去了.¹⁶(「羅漢腳」, 87~88 쪽)

위의 예문은 「羅漢腳」작품 결말 부분이다. 여기서 翁鬧은 슬픈 어조로 남동생이 팔려 간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 부분은 翁鬧의 의식속에 아련히 기억하고 있는 친부모와 자신이 양자로 팔려간 데 대한 슬픔을 표출하였다. 翁鬧의 내적 의식속에 자신이 팔려 간 기억이 아픈 경험으로 잠재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天亮前愛情故事」에서는 자연 법칙을 어기며 바나나를 강제로 가열한 것에 대한 반감을 제시하고 있다.

你可能知道香蕉的情形,放置不管,它當然也會熟,不過如果要它早一點熟,就得每天把它從甕裏取出來曬太陽,不然就把香插在甕裏,從事所謂逼熟.這樣一來,原來要三個星期才會熟的東西,只要一個星期左右就熟,情形大致如此.三個星期跟一個星期,是相當驚人的差別呢.同樣的,我的少年時代也經過反覆的逼熟,於是,無論願意不願意,我終於早熟了.我幾乎不能相信,在

¹⁶ 翁鬧著, 張恆豪 편, 『台灣作家全集短篇小說卷—日據時代』에서 「翁鬧、巫永福、王昶雄合集」, 1991.

這個世界裏還存在像我這樣早熟的少年. (「天亮前愛情故事」, ㉔-115~116 쪽)

翁鬧는 자신이 좋은 삶든 간에 자연 법칙을 어기며 바나나를 가열하듯이 자신을 강제로 조속하게 만든 성장 환경이 결국 자신을 잔인하고 파괴성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작품에서 직접적인 형성과정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翁鬧는 비유적으로 자신의 슬픈 양자 경험이 소년시절에 조속하고 파괴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변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내용으로 翁鬧가 동경 유학시절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당시 세계 체제로 형상화된 근대화 문명이 발달된 도시화된 동경의 생활에 편입되지 못하고 도피의 방법을 택하는 과정에서 李箱이 ‘권위주의 도피’ 지향적인 것과는 달리 ‘파괴적 도피’ 지향적인 면을 그의 생애사에서 추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작품에서 제시된 소외된 인물은 그들의 소외 극복과정, 극복 방법 등의 차이점을 살펴 볼 수 있다. 「날개」에서 주인공은 ‘돈’과 ‘외출’을 매개로 닫힌 공간에서 밖으로 지향하는, 즉 사회체제에 적응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天亮前愛情故事」에서 주인공은 ‘사랑’을 매개로 현실 세계에 편입되고자 시도했으나 실패한다. 주인공은 친구도 없이 단지 유곽의 창녀에게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여전히 현실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李箱의 「날개」에서 주인공은 현실 세계로 나가는데 성공하였지만 복잡하고 자기가 일어 설 곳을 아직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반면에, 翁鬧의 「天亮前愛情故事」에서는 주인공은 현실에 굴복하여 나약하게 실의와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냈다.

나. 암실에서 행복 찾기와 삶의 포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李箱의 「지도의 암실」과 翁鬧의 「慙伯仔」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1930년대 같은 일제치하 식민지 사회체제 하에 부조리한 일상생활을 그려냈다. 두 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유사점은 하루가 똑 같은 매일 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생활은 두 작품에서 모두 당시 식민지 생활의 규율을 상징하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나, ‘군역소의 사이렌’ 소리에 따라 일과를 시작하거나 일시 멈추는 것이다.

㉑ 정오의사이렌이호스와같이뻗쳐뻗치면 그런고집을 사원의종이땅땅뻗치다 그는튀어오르는고무볼과같은 종소리가아무데나 함부로헤어져떨어지는 것을 보아 갔다 마지막에는어떤언덕에서 종소리와사이렌이한데젖어서 미끄러져내려떨어져 한데 쏟아져쏟았다가 확헤어졌다 그는시골사람처럼 서서끝난뒤를까지 구경하고 있다. (「지도의 암실」, 169 쪽)

㉒ 相距約六公里的新永街役所の正午警笛聲, 穿過重甸甸的空氣底下傳過來, 老伯 仔便停止工作. (「慙伯仔」, 45 쪽)

예문 ①은 「지도의 암실」에서 ‘정오 사이렌’ 소리에 관한 내용이다. 당시 ‘정오 사이렌’은 노동이 정점에 다다른 대낮 12시에 휴식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신호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이렌 소리는 규율적인 일상생활로부터 오는 압박감을 상징하고 있다. ‘사이렌’ 소리는 휴식을 알리는 소리가 아닌 심리적 통제를 강요하는 소리인 것이다. 그리고 예문 ②는 「憨伯仔」의 부분이다. 憨伯仔의 일과는 아침의 ‘군역소의 사이렌’ 소리에서 시작되고, 밤의 ‘군역소의 사이렌’ 소리에 마친다. ‘사이렌 소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 외에 일과를 멈추게 하는 신호이다.¹⁷ 그러나 여기서 ‘군역소의 사이렌’ 소리는 일과를 마칠 수 있는 즐거운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닌 마치 자신의 고달픈 마음을 전달해 주듯이 그것은 무거운 공기를 뚫고 전해왔다. 여기서 ‘사이렌’ 소리는 밤이 되어야 쉴 수 있는 농촌의 고된 일상생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정오의 사이렌’ 소리는 당시 도시인들의 생활을 규율하는 물리적 시간으로 일종의 ‘신호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렌’은 농민들에게 감각의 기계적 반응을 무의식적으로 강요하는 통제 기체인 것이다. 일상의 군대화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근대 주체의 일상적인 감각을 통합하는 한 상징 표지가 되는 ‘사이렌’ 소리는, 표면적으로 식민지의 일상과 생활을 청각적으로 지배하는 기제일 수도 있다. 이면적으로 그것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그러한 소리에 심리적으로 종속되고 조절됨으로써 근대 주체의 일상적인 감각을 통합하는 한 상징적 표지가 되는 것이다.¹⁸

두 작품에 나타나는 차이점은 구체적으로 「지도의 암실」에서는 도시인의 일상 생활을 다루었으며, 「憨伯仔」에서는 농민의 일상생활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두 작품 주인공들의 일상 생활에 대한 의식 및 일상 생활의 패턴에 따른 의미에서도 차이성이 있다. 먼저 「지도의 암실」에서 주인공은 「날개」와 같이 직업 없고 게으른 무직의 지식인이 아닌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이다. ‘나’는 「날개」와 같이 아내에게 기식하며 할일 없이 늦은 오후 두시 또는 네시경에야 깨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닌 월급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도시인이다. 그러나 ‘나’의 일상생활은 일반인들의 노동시간인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에 휴식하는 생활 패턴과는 다르다. ‘나’는 밤새 글을 쓰며 새벽 네시에 잠을 청하려 누우나 아홉시까지 장장 다섯 시간이 지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의식이 몽롱한 채 흐느적거리며 몸을 일으켜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작한다. ‘나’는 양치질을 하고 변소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공상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근 한시간이나 변소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는게으르지않다늘투스브러시는그의이사이로와보고물이얼굴그중에도뺨을
건드려본다그는변소에서가장먼나라의호외를가장가깝게보며그는그동안에편
안히서술한다. (「지도의 암실」, 166 쪽)

¹⁷ 김성수, 『이상 소설의 이해-生과 死의 感覺』, 태학사, 1999, 127~128쪽.

¹⁸ 김성수, 『이상 소설의 이해-生과 死의 感覺』, 태학사, 1999, 123~128쪽.

‘나’는 거울을 보며 운동복으로 갈아 입고 조반을 먹는다. 그러나 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도시로 나서는 것이 아닌 마치 남의 모가지를 얻어다 붙인 것 같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한 뒤에 나설 수 있다.

①그는남의모가지를얻어다붙인것같아꽤깨끗했었으나그는그래도그것을앞세워내세우기로하였다그렇게하지아니하면아니되게다른것들. (「지도의 암실」, 167 쪽)

②그는그와관계없는나무사람옷심지어K를찾으러나가는것이다. (「지도의 암실」, 167 쪽)

위의 예문 ①과 ②에서 ‘나’는 거리를 나서기 전 사회적인 얼굴로 바꾼 후 ‘나’에게는 의미없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나 현실사회에 적응하며 살고 있는 K 같은 사람을 찾으러 집을 나선다. ‘나’는 현실적인 모습으로 변신한 뒤, 거리로 나서, 살내어 보이는 스커트를 입은 여인을 보고, 초콜릿 같은 페이브먼트 거리를 후울후 날으며, 버스도 타 보고, 음악도 듣고, 도어를 열고 레스토랑을 들어선다.

그는담보를제속하였는데페이브먼트는후울후날으는초콜릿처럼후울후날아서 그의 구 뚝바닥밑을미끄러이쭈뼌쳐나가고있는것이 그로하여금더욱더욱 담보를시킴에 한 원인이라면 그것도원인의하나가 될수도있겠지만 그원인의대부분은 음악적효과에 있다고아니볼수없다고 단정하여버릴만치 이날밤의그는음악에 적지아니한편애를 가지고있지않을수없을만치 안개속에서 라이트는 스포츠를하고 스포츠는그에게 있어서는 마술에가까운기술로밖에는 아니보이는것이였다. 도어가그를무서워하며 뒤로물러서는거의 동시에무거운저기압으로호르는고기압의기류를이용하여그는 그 레스토랑으로넘어졌다 하여도좋고 그의몸을게다가 내어버렸다 틀어박았다하여도 좋을만치그는그의몸뚱이의향방에대하여아무러한설계도하여놓지는아니한 행동을 직접행동과행동이가지는 결정되어있는운명에 내어맡겨버리고말았다. (「지도의 암실」, 172 쪽)

그러나 이러한 도시의 현란한 일상생활은 결코 주인공이 원하는 생활은 아니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일상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아닌 흡사 불행의 늪에 빠져 있는 것과 같았다. 특히 규율적인 일상생활의 동일성과 지루함은 마치 앵무새나 원숭이와 똑 같이 반복과 흉내만을 일삼는 것 같은 생활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것은 고통과 공포일뿐이다. ‘나’는 자꾸만 반복되고 지루한 의미없는 일상이 지겹고 견딜 수가 없었다. 도시의 문물과 일상생활은 나에게 마치 무덤과 같은 공포를 느끼게 하는 곳일뿐이다. ‘나’는 그 공포의 늪에서 헤어나기 위하여 노력하여 보았으나 결국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

시가지한복판에 이번에 새로생긴 무덤위로 딱정버리지에묻은각국웃음이 헤쳐려 떨어뜨려져 모여들었다 그는 무덤속에서 다시한번 죽어버리려고 죽으면 그래도 또한번은더죽어야하게되고하여서 또죽으면또죽어야되고 또죽어도또죽어야되고 하여서 그는힘들여한번몹시 죽어보아도 마찬가지로만 그래도 그는여러번여러번 죽어보았으나결국마찬가지에서 끝나는끝나지않는것이였다. (「지도의 암실」, 171 쪽)

이러한 복합적인 압박이 마치 거암과 같은 불안이 공기와 호흡의 중압이 되어 덩벼 들었다. 주인공은 마치 ‘암실’ 같이 첩첩이 된 방에서 첩첩이 닫힌 암실과 같은 자신의 의식과 내면의 방에서만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덧문을열고문하나를 연다음 또문하나를 연다음 또열고 또닫고 또열고 인
제는 어지간히 들어왔구나. (「지도의 암실」, 175 쪽)

‘나’는 위의 예문에서 암시되는 암실에서만이 일상생활이 가져다준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와 아름답고 복잡한 글쓰기를 시작한다. 오랜 글쓰기를 마친 후 다음 날을 생각하며 잠들 수가 있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지도의 암실」에서 주인공의 인식 속의 일상생활은 낮과 밤이 뒤바뀐, 전도된 생활 패턴을 암시하고 있다. ‘나’에게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밤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憨伯仔」에서 제시된 농촌의 일상생활은 전통적이며 유기체적 질서로 움직인다. 새벽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해가 지면 일을 끝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쉬는 생활 패턴이다. 「憨伯仔」에서 주인공인 憨伯仔는 「지도의 암실」의 주인공과 같이 초콜릿, 음악, 스포츠, 캠핑터, 극장, 페이브먼트, 라이트가 무엇인지 모르며, 레스토랑이 어떤 곳인지, 일요일에 살을 들어 내는 스커트를 입은 여인을 찾아 거리를 나설 여유는 더욱이 없었다. 憨伯仔는 생전에 한번도 바다 구경을 해본 적이 없으며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그는 상상도 못한다. 그리고 그는 사람은 일을 하기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는 호미를 드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의 하루는 호미를 들고 시작되며 해가 지면 역시 호미를 내려놓고 일상을 마친다. 「憨伯仔」의 일상생활은 「지도의 암실」에서 제시되는 근대적 도시의 일상생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憨伯仔」에서 憨伯仔는 물론 그의 일가족 모두 일외에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그의 동생 貫世의 부인 阿足은 시집 온 그 다음날부터 밥 짓고 빨래하고 일을 시작해야 했다.

從次日起, 新娘就開始作洗衣、煮飯等工作. (中略) 她即使不工作的時候, 也絕不笑. 不, 也許應該說, 就是笑了, 那又寬又大的平板的臉也不會起任何變化. 才過了一個禮拜, 她就到距離一公里不到的山麓下的磚廠去作工, 每天工資四十錢. 丈夫當台車夫的收入, 逢到香蕉、鳳梨、龍眼等水果出產的季節, 一天可以到一圓, 但多半還不夠買當天的食糧. 她在工廠裡比任何女工都勤快. 咬住厚厚的、一無表情的嘴唇, 象一班的腳冬冬地踩響著大地搬運磚頭. 早上六點出門, 回來總是在日頭下去以後. (「憨伯仔」, 32 쪽)

여기서 翁鬧는 동생 貫世의 부인 阿足의 일상생활을 통해 농촌 여성의 고달픈 일상생활과 동생 貫世의 하루살이 생활을 그려냈다. 그리고 憨伯仔의 어머니 阿金婆도 집에서 오순도순 손자를 보고 인류지락을 즐기는 것이 아닌 밥을 짓고, 빨감을 준비하고, 부업으로 돼지까지 키워야만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가 있었다.

또한 翁鬧는 「憨伯仔」에서 憨伯仔의 젊은 시절 농촌에 대한 기억인 하얀 집, 장난꾸러기들의 웃음소리, 그네 놀이 등 밝은 이미지를 통하여 憨伯仔의 행복했던 젊은 시절의 농촌 사회상과 가난하고 불행한 현재의 농촌 생활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老伯仔年輕時有好多白牆的或磚房，寬闊的埕子裡，一天到晚都可以看到頑童們的笑 鬧的樣子。春天來到，剛進了學校的小孩們在埕子裡的芒果枝椏上掛上繩子，盪鞦韆，如今這也看不到了。牆的顏色褪去，屋舍傾圮，原來那麼活潑的人們，都不得不過著寒 飢的生活。村子裡，人人都牛馬般地幹著活。他們之中沒有一個人懶惰的，也沒有一個人在想著生活以外的事，或策劃著什麼陰謀。然而，那種晴朗的笑卻從他們臉上消失了。他們都變得習慣於用萎縮的、扭曲的面孔來看東西，與別人交談。（「憨伯仔」，44~45 쪽）

위의 예문으로부터 憨伯仔의 기억 속에 행복했던 젊은 시절의 농촌과는 달리 위축되고 일그러진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다. 다시는 꼬마들의 웃음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집은 다 남아버렸고 궁핍한 생활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翁鬧는 憨伯仔의 내면세계 무의식 속에 담겨 있는 기억을 되살리는 형식으로 현재의 비참함과 과거의 행복함을 병치하여 대조시켜 憨伯仔 내면세계가 느끼는 현재 생활에 대한 절망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다. 憨伯仔는 새벽 4 시에 집을 떠나 새벽 이슬을 밟고 해뜨기 전의 길은 안개를 뚫고, 꾸불하고 위험한 벼랑 산길을 걸어서 죽순을 도매 받아 평지로 가서 팔아야 했다. 산에 도착하였을때 이미 정오가 다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이미 칠흙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다. 집에 돌아 온 憨伯仔에게는 쉼 고구마밥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에 눈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며, 마냥 침대에서 소용없는 공상만 하였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憨伯仔는 다시 바구니를 어깨에 짊어 메고 집을 떠나 산을 향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5. 나오며

이상으로 1930년대 같은 시대를 살았으나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李箱과 翁鬧의 소설에 나타난 소외 인물들의 비교를 통하여 두 작가의 소설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살펴보았다. 李箱의 「날개」에서 주인공인 ‘나’의 부적응은 ‘아내(사회체제)’에 대한 단절에 따른 갈등으로 생긴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天亮前愛情故事」에서 주인공의 부적응은 근대의 과학과 기술 문명의 발달(사회체제)에 대한 배타의식으로 인한 혐오와 싫증에 따른 갈등으로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두 작품에서 사회체제에 대한 부적응은 현실과의 대결에서 도피의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체제를 상징하는 ‘아내’ 혹은 근대화 문물은 이들을 억압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두 작품에서 사회체제에 대한 부적응에 대한 대응 방법은 李箱의 「날개」에서는 ‘외출’을 통하여 극복하는데 「天亮前愛情故事」에서는 ‘나’는 이상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여전히 슬픔과 우울에 잠겨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날개」와 「天亮前愛情故事」에서 인물들은 외부 세계와의 분리라는 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 도피를 수

단으로 선택한 것을 알아 보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날개」와 「天亮前愛情故事」에서 두 주인공이 선택한 도피의 수단에는 차이가 있다. 프롬의 도피 메커니즘 이론에 의거하면 李箱의 「날개」에서 주인공의 성격은 ‘권위주의 메커니즘’ 지향적인 반면, 翁鬧의 「天亮前愛情故事」에서 주인공은 ‘과괴적 메커니즘’을 선택하였다.

한편 李箱의 「지도의 암실」과 翁鬧의 「憨伯仔」를 통하여 1930년대 같은 시대에 창작된 두 작품에서 보여 주고 있는 것은 한국의 도시인과 대만의 소시민이 직면한 당시의 역사적 현실인 식민지화의 현실이었다. 「지도의 암실」에서는 식민지하 사회체제에서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을 거부하며 일상을 상실한 개인을 보여 주고 있는 반면, 翁鬧의 「憨伯仔」에서는 궁핍한 농촌의 일상생활에 오늘을 살아남은 것을 후회하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상실한 농민을 제시하고 있다. 두 작품이 일상생활에서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일상생활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동일한 일상에 대하여 절망과 허무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다.

30년대 같은 식민지 지배하에 억압된 특수 상황을 경험한 한국의 李箱과 대만의 翁鬧 두 작가는 자신의 세계관을 모더니즘 소설에 표출함으로써, 자신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배체제에 대한 은폐적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기본 자료

- 김윤식 편, 『李箱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1.
 翁鬧著, 陳藻香, 許俊雅編譯, 『翁鬧作品選集』(彰化縣立文化中心編印).
 翁鬧著, 張恆豪編, 『翁鬧, 巫永福, 王昶雄合集』, 前衛出版社, 1990.

2. 연구 논저

- 김윤식, 『이상 소설 연구』, 문학과 비평사, 1988.
 김성수, 『이상 소설의 이해-生과 死의 感覺』, 태학사, 1999.
 김주연, 『현대문화와 소외』, 현대사상사, 1976.
 김학동, 『比較文學』, 새문사, 2004.
 권영민, 『이상문학연구 60년』, 문학사상사, 1998.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사, 2001.
 서준섭, 『한국모더니즘 문학연구』 일지사, 1988.
 이명학, 『한·중 모더니즘 소설 비교연구』, 한국학술정보, 2006.
 이선영, 『문예사조사-고전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까지』, 민음사, 1997.
 정문길, 『疏外論研究』, 문학과 지성사, 1978.
 최유찬, 『문예사조의 이해』, 이룸, 2006.
 올리히 바이스슈타인 저, 이영유 역, 『비교문학론』, 弘盛社, 1981.
 陳藻香, 許俊雅編譯, 『翁鬧作品選集, 彰化:彰化縣立文化中心編印』, 1997.
 許素蘭, 『日治時代台灣小說選讀』, 萬卷樓, 1998.
 古繼堂, 『台灣小說發展史』, 台北:文史哲出版社, 1996.
 馬森, 『台灣戲劇-從現代到後現代』, 台灣:佛光出版部, 2002.
 蔡源煌, 『從浪漫主義到後現代主義』, 台北:雅典出版社, 1998.
 嚴家炎, 『中國現代小說流派史』, 人民文學出版社, 1989.
 陳美美, 「臺灣現代主義學的萌芽與再起」, 佛光人文社會學院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4.
 杉森藍, 「翁鬧生平及新出土作品研究」, 國立成功大學臺灣文學研究所碩士論文, 2007.

A Comparative Study on the Modernism Novels Between Lee Sang and Weng Nao

Chang, Hsiu-yung

This study of the Lee Sang and Weng Nao were aimed at a comparison of modernism. Lee Sang and Weng Nao, respectively, in Korea and Taiwan in the 1930s, is regarded as an important writer in the formative period of literary modernism. The novels of two authors hav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modernism. In this paper, by assuming it, the novel's characters were compared as a whole. The two artists have following characteristics in common. Their new artistic expressions to meet the colonial oppression of the 1930s situation has created a novel technique of modernism. Especially, the inner world of the subject alienated and isolated from the real world, due to the contradictory of capitalist society was channeled into a variety of techniques in their works. In addition, both the two authors commonly captured several aspects of marginalized people forced to live in the context of the colonies and embodied them in modernism novels. In a section in chapter 3, the figures able not to adapt to colonial social system were compared: Critical figures through maladjusted intellectuals of colonial society cut off real society trying to escape from closed their lives through 「Wings (날개)」 of Lee Sang and 「Love Story before Sunrise (天亮前愛情故事)」 of Weng Nao. In section 2, figures who do not adapt to everydayness under colonial rule are compared: Characters feeling fear of repeated daily 「Map of the Darkroom(지도의 암실)」 of Lee Sang and characters repeating the same boring stuff every day under colonial rule through 「Silly Peter Tsai(憨伯仔)」 of Weng Nao.

Keyword: Lee Sang、Weng Nao 、marginalized people 、colonial、modernism

